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7월 18일(화) 16시: 사무국 주간회의

■ 연구원 소식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연구원에 새 식구가 오셨습니다. 채곤석 님과 김현자 님이 그 주인공 이십니다. 채곤석 님은 익산 남성고등학교를 퇴직하신 후 군산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 시며 김현자 님은 고용노동부에서 퇴직하신 후 익산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두 분은 생의 동반자이십니다. 박애스더 행정간사님의 추천으로 연구원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시일에 회원 여러분과 인사 나눌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뜨겁게 환영합니다.

김건우 상임이사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장 임명

우리 연구원 김건우 상임이사가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한국고전 번역원 전주분원은 호남권 유일의 한문고전번역 공공교육기관으로, 1999년에 개원해 2009년부터는 전주한옥마을에 자리 잡은 이후 현재까지 많은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전문 번역가 양성뿐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기초반, 서예반, 인문학 강좌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책을 맡게 된 김건우 상임이사에게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 역사속의 오늘

영원한 민족주의자의 죽음 - 1947년 7월 19일

강원룡 목사는 생전에 회고록에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비록 노선은 내가 따를 수 없는 다른 길이었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우선 그는 로맨틱한 사람이었고, 한 인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신언서판(身言書判)에서 모두 뛰어난 남자였다. 나는 그의 외모에도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그는 첫째로 자유주의자, 둘째로 민족주의자, 셋째로 사회주의자였다.”

그를 회유하려는 일본인들에게는 아래처럼 면전에서 연설을 날렸다고 전해진다.

“주린 자는 먹을 것을 찾고 목마른 자가 마실 것을 찾는 것은 자기의 생존권을 위한 인간 자연의 원리이다. 이것을 막을 자가 있겠는가! 일본인이 생존권이 있는데 우리 한민족만이 홀로 생존권이 없을 수 있는가? 일본인이 생존권이 있다는 것을 조선인이 긍정하는 바이요, 조선인이 민족적 자각으로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신이 허락하는 바이다. 일본 정부는 이것을 방해할 무슨 권리가 있는가!”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했던 독립운동가였으며 숨을 놓는 순간까지 민족의 통합을 꿈꾼 휴머니스트였다.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 보호관찰대상 1호였으나 1944년 건국동맹과 농민동맹을 조직하여 전국적으로 4만 명에 이르는 조직원을 구축했으며 일제 조선총독부는 이런 그에게 패망 직전 조선의 치안을 맡겼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만들어진 건국준비위원회는 채 보름도 안 되어 전국적으로 145개의 인민위원회를 결성했다. 해방 후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하여 그들의 이념에 맞는 정권을 수립했지만 건국준비위원회가 있었기에 우리 현대사의 자주성을 설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한편 그가 당한 테러는 세계 정치사에서 전무후무할 정도로 최다 기록 수준이었다. 해방 이전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에도 임정의 본분을 벗어나 개인적인 명예를 추구하고 다닌다는 비판을 받아 괴한의 습격으로 가족들과 함께 1925년 12월 테러를 당한 적이 있었다.

해방 이후 그는 우익진영의 테러 1순위가 되었다. 지지자들은 우익이 지지기반이 약했다고 하고, 비판자들은 그저 임정과 대립하면서 사회주의에 지나치게 관대했기 때문에, 다른 운동가들처럼 공격대상이 되었을 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는 인간관계가 좋았고 몸이 건장하였기 때문에 여러 차례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강원룡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송진우를 죽인 암살범인 한현우도 처음에는 그를 죽이려고 했다 한다.

8·15 이후 정확히 2년간 총 12차례 테러를 당했다. 이런 직접적인 테러뿐만 아니라 협박 전화와 편지, 비방 벽보, 심지어 살인을 교사하는 신문 기사(이종형의 대동신문)까지 셀 수도 없을 정도였다. 그는 다섯 번째 테러를 당했을 적에 "나는 죽어도 이 길을 가겠다."라고 말했고 아버지를 걱정하는 자식들에게 "혁명가는 침상에서 죽는 법이 없다. 나는 거리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앞날을 예견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한다.

1947년 7월 19일 IOC가입을 축하하는 한국과 영국의 친선축구경기가 열린 날, 당시 조선체육회장 겸 한국올림픽위원장이었던 그는 경기 참관 전에 옷을 갈아입겠다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피신처로 머물던 명륜동 집에서 계동 자택으로 가는 길의 종로구 혜화동 로터리의 파출소에서 트럭 한 대가 나와 그가 탄 차를 가로막았다. 차가 멈춰선 사이 배후를 알 수 없는 청년 한지근이 범퍼에 올라타 두 발의 총탄을 쏘고 그의 심장과 배를 관통했다.

당시 옆에 앉았던 측근 고경흠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죽기 전에 최후로 내뱉었던 말은 "조국..." 그리고 "조선..."이었으며, 미소를 띤 얼굴로 죽었다고 한다. 테러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의 몸이 된 것에 대한 기쁨의 미소인 것 같다. 이전에 쓴 편지 중에서 좌우합작 운동은 계속할 것이지만 공포에서조차 해방될 수는 없다는 요지의 말이 발견된 바 있다. 당시 입었던 옷이 아직 보관되고 있는데, 핏자국이 선명하고 총이 그야말로 정확히 관통한 흔적이 남아있다.

그의 암살자 배후 용의자는 유독 많았다. 우선 많은 이들은 이승만 이하 극우 친일파 세력을 지목한다. 여기에 임시정부에 대한 폄하에 분개한 김구 계열의 암살설도 있고 한때 일생의 동지였지만 결별 한 박헌영이 사주했다는 말과 심지어 김일성이 그를 이용하다가 죽였다는 설까지 있다. 해방 공간의 유력한 정파 모두가 그를 암살의 용의자로 떠오른 것이다. 이상의 주장들은 놀라우리만큼 제각각 신빙성을 갖고 있으며, 이들 주장이 맞다면 그는 좌우익 모두에게서 공격을 받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그가 높은 대중적 인기와 '한국 현대사 최고의 명연설가'로 대변되는 정치적 역량 등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어느 한쪽에 몸을 싣기보다는 끈덕지게 이념과 분파의 합작을 추진했고 그 와중에 한쪽에서는 빨갱이로 한쪽에서는 기회주의자로 오인받고 비난받았던 것이다. 그가 죽자 좌우를 연계한 중도 운동, 남북한의 통일 정부 구성 운동은 구심점을 잃었고 그해 12월, 좌우합작위원회는 해체되고 말았다.

그의 장례식은 우리 현대사에서 지금까지 최초이자 최후로 기록된 "인민장"으로 치러졌으며 수십 만 명의 민인들이 자발적으로 상복을 입어 서울 시내가 하얗게 변했다. 죽는 순간까지 되뇌었던 "조국...조선"은 지금도 갈라져 있고 남북한 모두 민족의 '합작'을 거부하는 강경파들로 인해 오리무중을 헤매고 있다.

그가 해방 이후 근로인민당을 창당하며 밝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울림이다.

"우리가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소련도 방해할 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친소반미도 친미반소도 해서는 안 된다. 이념은 자주통일이 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인민에게 물어서 택하면 된다."

또 그의 사후 발표된 8대 유훈은 미래를 향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몰된 2023년 한국 정치권에 전하는 준엄한 죽비와 다름없다.

"인민대중에게나 일반 애국인사에게나 또는 민주주의 우당(友黨)에게나 늘 충실하고 겸손한 포용적 태도로써 그들과 제휴하고 협조하여 반동진영 중에 속하는 인사 중에서도 동지를 만들고 그를 발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근로인민당의 특색이 되도록 하자."

1947년 7월 19일 혜화동 로터리에서 몽양 여운형이 같은 민족의 총탄에 숨을 놓았다.